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	평창
2017년 7월 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 5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			
배포일시	2017. 7. 5.(수)	담당부서	에너지신산업진흥과
담당과장	허정수 과장(044-203-5390)	담 당 자	안재훈 사무관(044-203-5391)

청정·스마트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저장장치(ESS) 보급 크게 늘어

❶ 금년 6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1.6배 수준인 약 89MWh 보급
❷ 연말까지는 전년(225MWh)대비 약 2배(431MWh) 가량 증가할 전망

□ **산업부**(장관 주형환)는 청정·스마트 에너지시대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**에너지저장장치(ESS)의 국내 보급이 전년에 비해 빠르게 늘고** 있는 등 **초기시장 창출노력이 탄력**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.

○ 올해 **상반기 에너지저장장치(ESS) 보급**은 89**MWh로 전년 동기(55MWh)대비 약 60% 증가한 것**으로 나타났으며,

○ **하반기 투자계획*을 조사**한 결과, **연말까지는 431**MWh**가 보급되어 연초에 설정했던 목표(270MWh)를 훨씬 넘어설 것**으로 전망이다.

* 정부예산사업 수요와 23개 주요기업의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
** 지난해 실적인 225MWh의 1.9배 수준에 해당

□ **투자 주체별**로 보면, **민간의 투자가 급격히** 늘어났는데,

○ **작년 상반기 1MWh 수준에 그쳤던 민간 투자**는 **금년 상반기**에 **40MWh로 급증**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

- **에너지저장장치(ESS) 전용금융상품 집행 효과**(20MWh) **등**으로 **연말까지 192MWh로 확대**될 것으로 예측됨

○ **공공 투자는, 상반기에** 한전의 주파수조정용 사업 감소로 **전년(54MWh)대비 9% 감소한 49MWh**에 그쳤으나,

- **하반기에는** 신재생연계형 투자수요 확대로 **연말까지는 전년대비 61% 증가한 239MWh를 기록**할 전망

□ **용도별로는** 지난해 상반기 실적이 없었던 **신재생연계형 보급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피크저감용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.**

○ **(신재생연계형)** 신재생 연계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EC) 가중치 5.0 부과(16.9월) 등을 통해 **올해 상반기에는 '16.상 0 → 17.상 42MWh로 확대**되었으며,

- 하반기 영흥(18MWh), 삼천포(32MWh) 등 석탄화력내 태양광연계 에너지저장장치(ESS) 구축 등에 힘입어 **전년대비 2배 증가한 220MWh가 구축**될 전망이다.

○ **(비상전원용)** 에너지저장장치(ESS)를 비상전원으로 허용하기 위한 안전규정 정비('16.7) 이후 **16.상 0 → 17.상 7MWh로 대폭 확대**되었으며,

- 연말까지 S백화점(3.3MWh), H의료원(0.5MWh) 등 **대형건물에 추가 구축**되어 **전년(6MWh)대비 2.7배 증가한 16MWh가 구축될 전망**이다

○ **(피크저감용) 상반기에는 5MWh로 전년(9MWh)대비 다소 감소**하였으나,

- 하반기에는 H사(조선), S사(반도체) 등 주요 기업의 대기수요가 투자로 이어져 **연말까지는 전년대비 3.1배 증가한 160MWh가 보급될 전망이다.**

○ **(송·배전망용)** 한전의 주파수조정용 사업 계획에 따라 올해도 **35MWh 추가 구축할 예정이다.**

□ **이러한 보급 증가**는 **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된 지원방안(인센티브) 강화조치*와 새 정부의 청정·스마트 에너지정책**에 대한 기대감에 기인**한 것으로 분석된다. **(에너지신산업 주요 기업 23개 대상 설문, 6월)**

* 태양광연계 에너지저장장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(ESS REC) 5.0 부여(16.9월), 요금특례제도 시행·확대(17.1, 5월) 등
** 2030년까지 전력생산비율의 신재생 20% 달성, 에너지신산업 선도국가로 도약, 저탄소·고효율 에너지구조로 전환 등

□ 산업부는 **이러한 투자 분위기가 에너지저장장치(ESS)산업이 에너지신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초기시장 창출**로 이어질 수 있도록,

○ 특례요금제, 정부보조, 융자지원, 전용금융상품 출시 등 다양한 **지원을 지속해** 나가는 한편,

○ 업계, 에너지공단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**급격한 수요증가에 따른 배터리 등 부품공급 안정화, 불량제품 유통 및 설치 하자 차단** 등 **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적극 노력**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안재훈 사무관(044-203-539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